

한국 대학교육의 국제화와 대학생 해외연수

김 현 택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장

고등교육의 국제화 과정은 분명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민족과 국가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류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조화를 추구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지식 창조 주체로 도약해야 하는 한국 대학들이 향후 몇 년 동안 대학교육의 국제화 과정에 적응해 가는 방식은 이후 우리 고등교육의 진로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I. 머리말

세계화의 물결,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 이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의 대학들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활발해진 우리 대학교육의 국제화 현상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세계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좌표를 잃고 방향하게 하는 혼란도 야기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각 지역 고등교육 기관간의 국제 교류는 활발해졌다. 저렴해진 해외여행 비용, 국제 노동 시장의 다변화, 개도국의 취약한 고등교육 인프라, 북미 및 유럽 일부 국가들의 해외 전문 인력 유치 정책 등은

대학교육 국제화 과정을 가속화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럽 지역 대학들이 이 기간 동안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국제교육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한편, 국제교육의 주 수요자인 아시아권 대학생들의 국제교육 무대는 영어 사용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북미 지역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북미 지역과 호주는 세계 고등교육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교육서비스 수출 국가로 부상했다.

한편 대다수의 우리 고등교육기관들은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대학교육의 국제화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이 맡아야 할 임무의 일부를 스스로 없이 해외 고등교육기관에 넘겨주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해외여행 기회가 늘고, 대학

졸업예정자에게 해외연수가 필수 사항이 되고, 또 대학마다 국제 교류 활성화를 외치며 해외어학연수와 교환 학생 파견 사업에 앞다투어 나선 결과였다.

그렇다고 해외어학연수와 학점 교류 같은 우리 대학들의 국제화 노력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며, 이모저모를 고려하면서 바람직한 대학의 국제 교류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때마침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우리 고등교육 국제 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교육 수출 국가 진입을 목표로 'Study Korea 프로젝트'를 내 놓은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다.

고등교육의 국제화 과정은 분명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내대학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형태의 해외어학연수와 학점교류 사업이 확대된다고 해서 우리 고등교육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무작정 국제 교류 사업에 열을 올리는 일을 잠시 멈추고, 왜, 무슨 사업을,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옳은 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 고등교육 국제화의 세계적 추이

고등교육 공급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일이 많아지고, 고등교육 기관간의 상호 협력이 증대되는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추세이다.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대학을 변화·발전시키자면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 현실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대학은 선진국의 고등교육 모델에서 장점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세계적 수준의

명문대학들은 그간 축적해 온 교육과 연구 성과를 다른 대학들과 공유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의 측면에서 볼 때, 고등교육의 국제화 과정은 개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기관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 학생 개인이 단기 연수, 학점 취득, 또는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해외로 떠나는가 하면, 특정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해외로 수출되어 현지에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또 앞의 두 가지 형태보다 드물기는 하지만 교육기관 자체가 해외에 직접 진출하여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고등교육의 국제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대략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학문적·문화적 교류를 매개로 상호이해 증진을 추구하는 순수한 형태의 국제교육 교류를 들 수 있다.

둘째, 고급 전문 인력의 특정 국가로의 유입과정이다.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해외유학생 중에서 우수인력을 충원하고 또 선택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뉴질랜드, 그리고 부분적으로 미국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해외유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을 자국 고등교육기관의 예산 확보 방안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들 국가의 대학에서 외국인에게 더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고 또 해외에서 학생 유치에 열심인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후된 국내 고등교육 인프라를 보완하고, 또 해외 저명 대학의 모델을 토대로 자국 내 대학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를 들 수 있다. 일찍이 이 분야에서 성공한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최근 들어 이러한 영역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같은 분류에 따르면, 현재의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일정기간 해외 교육기관에 비용을 지출하면서 공부하는 대표적인 교육 수입 국가로 분류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4월 기준으로 해외 대학과 대학원 유학 중인 우리나라 학생은 무려 187,683명에 달하며, 이들 중 학위 과정에 있는 105,893을 제외한 총 81,790명이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들이다.

이같은 규모의 대학생 해외연수는 고등교육 기관의 역량이 어느 정도 축적된 우리 현실에서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우리 고등교육의 해외 의존도가 턱없이 높다는 말이다. 일례로 OECD 국가 중, 한국은 해외 수학 중인 우리 학생 대비 한국에 유학 중인 해외 유학생 비율이 19:1에 이르는 교육 부문 무역 수지의 적자 폭이 가장 큰 나라이다. 고등교육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멕시코와 터키가 동일 지표에서 각각 7:1과 3:1을 기록하고, 교육 수출 국가들 중에서 일본이 1:2, 미국이 1:17, 그리고 호주가 1:24를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 고등 분야의 국제적 인적 이동이 얼마나 굴절되어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해외연수와 유학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교육서비스 수출 형태로 벌어들이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2001년 기준으로 연간 114억 9000만 달러), 영국(111억 4100만 달러), 오스트레일리아(21억 4500만 달러), 뉴질랜드(3억 5300만 달러) 등이 있으며 이들 나라의 대다수 대학들은 외국 학생에게 내

국인보다 더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학생들의 해외연수는 아주 선택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관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초급 및 중급 외국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개의 거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을
무턱대고 장려하기 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학문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대학의 해당 분야
전공 학생들이 그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누리고 있는 해외 교육기관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인증
협력 사례를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점 대학이 IREX(International Research and Exchanges Board)의 지원을 받아 관장하는 미국 대학생 해외연수는 미리 마련한 커리큘럼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연수 시작 전후를 기점으로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연수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도 지도 교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대학생 대다수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필수 외국어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현실과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선진국 학생들의 외국어 공부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대학생들의 해외연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만 한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물

론이고, 학비에 상응하는 교육 품질은 학생을 파견하는 학교 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 지역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다자간 고등교육 협력 체계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45개국이 참여하여 교육 인증 및 학위 수여 제도를 확정한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과 유럽 내 학점 인정 시스템(ECTS: European Course Credit Transfer System)의 도입으로 인해 고등교육 국제 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확고해졌다. 뿐만 아니라, 학생 및 교수 요원의 국제적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에라스무스(Erasmus), 또 이 프로그램을 교육 전반으로 확산시킨 소크라테스(Socrates), 외국어 교육 및 학습 증진을 위한 링구아(Lingua), 직업 훈련 교육을 전담하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중유럽과 동부 유럽 지역을 지원하는 템푸스(Tempus)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은 유럽 지역 내에서 고등교육 교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역사·문화적으로 우리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일본 및 중국의 주요 고등교육기관들과 우리 대학들이 유럽 모델과 유사한 교육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나아가서 북미와 영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지역으로 이같은 협력 체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보직하다.

Ⅲ. 한국 대학교육 국제화의 현주소

해외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중

인 학생들을 제외할 경우, 우리의 국제 교류는 대학생 해외언어연수, 교환 학생 제도를 통한 학점 취득, 그리고 해외 협력 대학에서의 복수 또는 공동학위 취득 등의 영역으로 압축 된다.

2004년도에 해외어학연수 과정을 이수한 우리 대학생들이 수학한 나라들을 열거하면 미국(전체 학생의 30.0%), 중국(12.6%), 호주(9.5%), 일본(9.1%), 캐나다(7.1%), 뉴질랜드(7.1%) 등의 순서가 된다. 이 학생들 중에서 해외에서 학점을 취득한 대학생 수는 총 9,188명이고, 학생 1인당 평균 취득 학점은 11학점이다.

해외연수를 떠나는 주요 동기로는, 우수한 교육 기회 체험, 현지 언어 습득, 해외 문화 체험, 향후 해외 거주 가능성의 탐색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육을 받으면서 현지어 구사 능력을 기르는 일인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현지 연수 중에 받는 교육이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육과는 다른 외국인 전용 특별 과정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일정 수준의 미국대학에서는 소속 대학 학생이 해외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경우 꽤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상이다. 고등교육 분야 국제 교류의 첫 번째 전제가 교육과정과 내용의 우수성에 대한 상호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희망 학생에게 교육 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데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대학들이 학생들의 해외연수 학점 인정 시 지나치게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얼마 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권장하고 나선 해외대학과의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수여제도 역시 자칫하면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

나 검증되지 않은 해외대학의 학위 증서를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을 무턱대고 장려하기 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학문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대학의 해당 분야 전공 학생들이 그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누리고 있는 해외 교육기관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인증 협력 사례를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1995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와 협력하면서 정착시킨 2+2 복수학위제도도, 엄격한 절차에 따른 우수 학생 선발, 상대편 대학 학사 지원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조 채널 구축, 그리고 현지 수학 중인 우리 대학 학생의 학업 및 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 교수의 멘토링 시스템 마련 등과 같은 작업들이 단계별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해외어학연수와 학점 취득을 목표로 하는 교환 학생 파견의 경우에도,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와 외국어 구사 능력을 미리 점검하고, 해당 지역 파견을 위한 사전 예비 교육을 실시하며, 상대편 대학 담당자와의 업무 협조 채널을 상시 유지하는 것 같은 면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 없는 해외연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BRICs 4개국의 저명 대학에 매학기 학생을 파견하는 사업도 엄격한 선발 과정과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거친 결과, 해외 파견 이후 현지 대학 당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성공적인 국제 교류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약 60% 정도가 외


국대학과 학술 교류를 추진하면서, 상당수의 재학생을 해외에 파견하고 또 외국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총 17건에 머물고 있는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수여 제도도 가까운 장래에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시대적 요구이기는 하지만, 유행처럼 번지는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고등교육 국제 교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서 우리의 대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그 성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대학 당국의 부단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IV. 맺음말

고등교육의 국제화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함의를 내포한다.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우리 대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 세계적 지식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아울러 우리 대학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 또한 현실이다. 일부 분야에서 해외 우수 대학과의 협력은 필요하겠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효율성이 높지 않은 해외교육의 거품을 걷어내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 개방에 적극적이었던 싱가포르에서 2000년을 기점으로 국내에 개설한 우수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수가 해외로 떠나는 유학생 숫자를 능가한 것이나, 1995년부터 2003년 사이 중국에서 해외에서 도입된 고등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9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민족과 국가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류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조화를 추구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지식 창조 주체로 도약해야 하는 한국 대학들이 향후 몇 년 동안 대학 교육의 국제화 과정에 적응해 가는 방식은 이후 우리 고등교육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OECD(2004). *Internationalization and Trade in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참고 문헌

교육인적자원부. Study Korea 프로젝트 세부 추진 계획. 2005. 4.

교육인적자원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학술 교류 현황. 2005. 8.

교육인적자원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보고서 첨부자료. 2005. 8.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4년도 국내·외 유학생 통계.

김현택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 슬라브어 문학과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외협력처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세 명의 러시아 현대 작가에 나타난 종교적 주제』, 『샬라모프(V. Shalamov)의 문학에 나타난 묵시론적 메시지』 외에 20세기 러시아 문학 및 문화 관련 논문들과 K. 모츨스키의 『도스토예프스키』 외 다수의 번역서가 있다.

